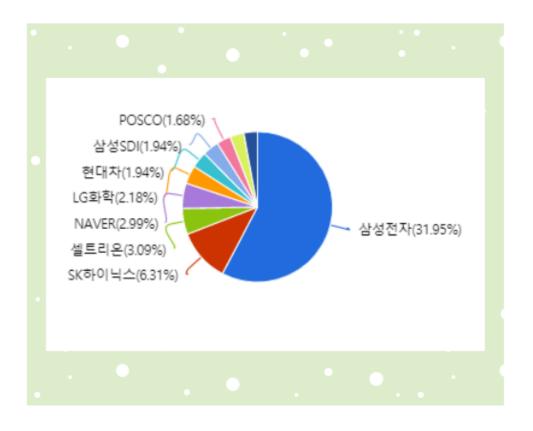
예를 들어 대표적인 ETF 상품인 'KODEX 200'을 1주 산다고 했을 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네이버, 등등 의 총 200개가 되는 기업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KODEX 200'의 1주 구성종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풀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KODEX 200'의 주가가 <mark>1주에 1,000원</mark>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1주를 구매하면, 나의 <mark>1,000원</mark> 의 구성종목은 아래처럼 되는 것입니다:
● 삼성전자 (319.5원)
• SK 하이닉스 (63.1원)
● 셀트리온 <mark>(30.9원)</mark>
그 외 (586.5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ETF의 큰 이점 중 하나입니다.
'KODEX 200'의 오늘 (2020/04/17) 종가는 <mark>25,925원이었습니다</mark> .
내가 만약 KODEX 200을 1주 보유하고 있었다면, <mark>25,925원으로, 삼성을 비롯한 199여 개의 기업들에 투자를 한 것이 되겠지요.</mark>
너무나 많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록 수익률이 대박 날 수는 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 위 모든 기업들의 평균치 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리의 힘으로 인해 이 수익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KODEX 200'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mark>228%</mark> 의 수익을 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ETF 의 종류도 다양하다.

코스피 200 ETF - 코스피 200 지수 1배 추종 코스피 200 레버리지 - 코스피 200지수 2배 추종 코스피 200 인버스 - 코스피 200지수 반대 추종 코스피 200 인버스 2X - 코스피 200지수 반대 2배 추종 코스피 200 TR - 분배금재투자 ETF

처음 주식시장에 입문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코스피 200지수를 1배 추종하는 코스피 200 ETF로 입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듯 하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아무래도 위험도가 ;;

대표적인 코스피 200 ETF는 다음과 같다.

ETF명	운용사	시가종액	평균거래액	운용보수	상장일
KODEX 200	삼성자산운용	67,816억	2,434억	0.15%	2002. 10
TIGER 200	미래에셋자산운용	33,310억	710억	0.05%	2008. 04
KBSTAR 200	KB자산운용	12,660억	239억	0.045%	2011. 10
HANARO 200	NH아문디자산운용	8,729억	147억	0.036%	2018. 03
ARIRANG 200	한화자산운용	7,868억	150억	0.04%	2012. 01
ETF명	운용사	시가총액	평균거래액	운용보수	상장일
KINDEX 200	한국투자신탁운용	6,807억	138억	0.090	2008. 09
KOSEF 200	키움투자자산운용	6,603억	42억	0.13	2002. 12
파워 200	교보악사자산운용	1,348억	12억	0.145	2012. 02

대부분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의 경우, 지수를 완전복제하는 상품이 대부분. 예외적으로 ARIRANG 200 과 KOSEF 200 은 부분복제.

구성종목의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이고 괴리율 역시 대부분 0.5% 이하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수준이다.